새만금 수변도시·그린산단·태양광 사업 동시 착공

2만 5000명 자족도시
‘RE(신재생에너지)100’ 구현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탄소 중립·그린 뉴딜 중심지 육성

지난 18일 군산시 새만금 소라쉼토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이 열렸다.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새만금 지역에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이 동시에 착공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이다.

20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새만금 소라쉼터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의 착공식을 진행했다. 또 육상태양광 선도사업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착공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서해를 메워 간척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200만 평) 크기의 부지에 약 2만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스마트·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다. 또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변 정주공간도 함께 조성해 쾌적성을 높인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창의문화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지구, 생태/주거지구,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 거점 사이에 공원·녹지축을 조성해 공간을 연결한다. 수변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차별화된 3개의 호수도 배치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날 육상태양광 선도사업과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착공했다.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이후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지역 산업연구용지 동측 1.15㎢ 크기의 부지에 새만금희망태양광이 약 0.1GW(99MW)급 발전소를 설치해 오는 2022년 발전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앞으로 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나머지 재생에너지 사업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새만금은 이를 통해 총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단지로 탈바꿈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RE100’(기업이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Renewable Energy 100%)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도 함께 조성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3.7㎢)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속도가 빠른 산업단지 5공구부터 용지 조성에 착수한다. 5공구에는 최근 새만금에 2조1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SK컨소시엄의 데이터 센터(3.3만㎡)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사업법이 이달 초 개정돼 내년부터 사업 진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년 중 스마트그린 산단 마스터플랜 마련과 2022년 인프라 조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등의 성과를 새만금 전역에 적극 확산하고, 새만금 지역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는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인 함라산에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함라산 녹차 자생지.

익산 함라산에 전북 유일 ‘국립 치유의 숲’

60ha 활용 2024년까지 조성

익산시가 산림청과 함께 함라산에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인 함라산에 전북 최초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함라산은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00억원이 투입,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웅포면 웅포리 산95번지 일원(6필지) 약 60ha다. 이 숲에는 산림치유센터와 전망대, 무장애 데크 숲길 등이 조성된다.

익산시는 2021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또 2022년 사업에 착공해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국립 치유의 숲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0곳(강원도 4, 충남 1, 충북 1, 전남 2, 경북 1, 울산 1)이 조성돼 있다.

현재 조성 중인 곳은 2곳(전남 화순, 부산 사하)이며 전북에서는 익산이 유일하다.

익산시는 ‘국립 치유의 숲’을 인근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청정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지역의 힐링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국립 치유의 숲 예정지 인근에는 산림문화체험관,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등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임도 숲길(태봉골-칠목재 9㎞구간)과 중요 산림자산인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위치하고 있다.

금강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 입점리 고분전시관, 웅포 골프장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
고창군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안전처장 표창

고창군은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서 전북 1위를 차지했다.

고창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은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식중독 발생 저감률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평가한 뒤 광역자치단체마다 1곳씩을 선정하는 상이다.

고창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식중독 안전검사와 예보지수 알림이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집단급식소 19개소에는 세균측정기(ATP)를 대여해 종사자와 관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 기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식품위생 관리가 중요해 졌다”며 “지속적인 식품 안전관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 연구활동 활발

정읍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역사문화연구회 소속 이도형, 김승범, 박일, 이익규, 고경윤, 이상길 의원 등 6명은 지난 16일 지역 역사문화공간 곳곳을 현장 실사했다. 〈사진〉

의원들이 찾은 곳은 충렬사, 정읍향교, 쌍화차거리, 송우암 수명 유허비, 정읍사공원, 하다리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으로 발길이 쏠리는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정읍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과 문화예술인을 소재로 한 ‘도보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것이다.

정읍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장인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숨은 매력을 찾아 관광코스화 및 도심투어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정읍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522개 모든 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

300대 추가…노후카메라 교체

남원시는 마을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마을 50여 곳에 마을방범용 CCTV 300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시는 마을 이장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 대상지를 선정, 우범지역과 생활안전 취약장소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카메라를 교체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 내 23개 읍·면·동 총 522개 마을 전체에 1329대의 마을방범 CCTV 설치 사업이 마무리됐다.

남원시는 내년부터는 이들 마을의 낡은 CCTV를 차례로 교체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마을 진출입로에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절도범들의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수사단서 및 증거를 확보하고, 치매노인 등의 미귀가 사건이나 실종사건 발생 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